

출토 100년 나주 신촌리 금동관 재조명

한반도에서 처음 출토된 금동관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7년 12월23일 조선총독부 조사원 야스이 세이이쓰(谷井一)가 조선인 인부들을 동원해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했다. 발굴 당시 대형 독널 안에 보관돼 있었는데 화려한 고대 금속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는다.

당시 금동관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들이 출토됐지만 암울한 식민지 시대 상황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곧바로 고향 나주를 떠나 경성(京城)으로 옮겨졌다. 이후 100년이 지난 나주 신촌리에 국립나주박물관이 세워지고 고향을 떠났던 반남 고분군 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됐다.

신촌리 금동관을 매개로 영산강 유역 고대 국가 지배 세력의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나주박물관과 나주시는 오는 12월로 발굴 100주년을 맞는 신촌리 국보 금동관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17일 개최한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나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고·미술·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소개될 전망이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국보 295호 금동관' 출토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내년 1월 7일까지)이 열리고 있어 이번 행사는 고고학적 의미를 다각도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촌리 금동관은 전남 고대문화의 상징적 유물임에도 일제강점기 발



나주박물관 17일 국제학술대회
고고·미술적 가치 강연·토론
서산 금동관·금동신발 등 전시

굴했다는 시대적 배경으로 종합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

현재 전시장에는 신촌리 금동관 외에도 '서산 부장리 금동관'과 신촌리 출토 금동신발과 유사한 '익산 입점리 금동신발' 등 당시 권력자들이 사용한 화려한 위세품이 전시되고 있다.

1부는 '동북아시아의 금동관과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사용된 금관·금동관에 대해 다룬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건길 이사장(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나주 신촌리 금동관 발굴의 의의와 100년의 발자취'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1917년 나주 반남면 고분 발굴이야기'(정인성, 영남대학교)가 발표된다. 1917년 반남고분군을 처음으로 발굴한 야스이 세이이쓰의 발굴 당시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상황이 소개된다. 다음으로 '몽골에서 발굴된 투르크제국 비계 카건의 황금관에 대한 고찰'(G. 에렉젠, 몽골과학아카데미), '관을 둘러싼 백제·영산강유역과 왜의 교섭에 관한 예찰'(다카타 칸타,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이어진다.

2부의 주제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마한 정치체의 성격'이다. 신촌리 금동관에 대해 조명한 학자들의 발표가 펼쳐진다.

'제작기법을 통해서 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계통'(이진우, 국립나주박물관), '관을 둘러싼 백제·영산강 유역과 왜의 교섭에 관한 예찰'(이경화, 문화재청 감정관실)을 통해 신촌리 금동관의 조형성과 그 의미를 다루고 그 계통을 추정한다. 또한 '금동관의 제작 주제'(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착장자의 정치적 성격'(김나중, 전북대학교)이 이어진다.

발표가 끝나면 임영진 교수(전남대학교)의 사회로 다케스에 준이치 교수(후쿠오카대학교)·박보현 교수(대전보건대학교)·정재운 교수(공주대학교)·문안식 소장(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신촌리 금동관의 계통과 마한과 백제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필우회'전 16일~22일 금남로 4가역 갤러리

제40회 '필우회'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지하철 금남로 4가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린다.

송파(松坡) 이규형 선생(삼락서예원 원장)의 지도를 받는 이들의 모임인 '필우회'(회장 김일환)는 지난 1977년 창립 후 매년 70~100여명이 참여하는 정기 회원전을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이규형 원장을 비롯해 김종철·이기숙·채병기·민병걸·김선규·정재호·박일구·표형섭 회원 등 모두 64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회원들은 다양한 서체와 함께 '삼성오신(三聖伍身)',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등 인생의 좌표와 지혜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또 '금강경' 등 저서와 추회, 두보 등 문인들의 작품에서 뽑은 글들도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5시 열린다. 문의 062-223-54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7일·23일 전남대 영미문화연구소 문학세미나

김남주·이시구로 문학 조명

1970~80년대를 온몸으로 맞서다 스러져간 '전사' 김남주(사진) 시인, 미국 할렘 르네상스를 이끈 시인 랭스턴 휴즈, 두 시인의 시 세계를 조명하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학 세미나가 펼쳐진다.

또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일본계 영국작가인 가스오 이시구로의 문학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특별 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전남대 영미문화연구소(소장 나희경·영영문학학과 교수)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문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는 17일 오후 1시30분 인문대 1호관 113호실에서 '불이 밀어낸 어둠: 김남주와 랭스턴 휴즈의 저항시'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학평론가 김형중 교수(조선대 국문과)가 김남주의



시세계에 대해, 로버트 그로한 교수(전남대 영문과)가 랭스턴 휴즈의 시세계에 대해 발표하고 김연민 교수(전남대 영문과)와 김은영 교수(전남대 영문과)가 토론을 벌인다.

두 번째 세미나는 23일 오후 3시 인문대 1호관 103호에서 이경순 전남대 영문과 명예교수의 '위대한 감정의 힘: 가스오 이시구로의 문학'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된다.

이경순 명예교수는 '스피박의 대담' '서사와 문화: 영어권 문학에 재현된 탈식민 문화' 등의 저자이며 페미니즘 및 탈식민주의 문학과 문화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영문학자이다. 문의 062-530-312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시실 전경.

광주여성필하모닉 '스위트 콘서트'

18일 광산문화회관... 고3·수능생 무료 관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제46회 정기연주회 '스위트 콘서트'를 연다.

예술감독은 광주여성필하모닉 김유정 대표가 맡았으며 광산문화예회관 상주단체로 함께 활동하는 그린발레단이 특별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모음곡(Suite)의 향연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선 지휘자를 초청해 함께하며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과에 재직중인 박수용 교수가 색소폰으로 협연한다.

연주 프로그램의 관현악 모음곡은 그리그의 '페르리트 모음곡 제1번'과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제2번'이다. 박수용 협연곡은 이투라데의 '알토 색소폰을 위한 차르다시'며 그린발레단 강동원과 김예린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트리치 트리치 폴카'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다.

그리그는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동명 시극을 위해 만든 23개의 부수음악 '페



르리트' 중 4곡을 골라 제1모음곡을 만들었으며 '아침', '오제의 죽음', '아니라의 춤', '산의 마왕의 전당에서'로 구성돼 있다.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은 알퐁스 도데의 희곡 단편소설의 부수음악으로 작곡된 것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유명하며 '목가', '간주곡', '미뉴에트', '파랑돌'로 구성돼 있다.

올해 고3생이나 수능 수험생들은 초대로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가격은 1000원이다. 문의 062-960-898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고향·어머니... 그리움으로 품어온 시

전남주 시집 '그리움은...' 발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시들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내는 것은 설레면서도 주저되는 일이다. 영암 출신 전남주 시인은 최근 등단하고 10년 만에 첫 시집 '그리움은 신경통처럼'(좋은땅·사진)을 펴냈다.

시인은 매해 신년 시집을 내야지 하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작품집 제목처럼 시에 대한 그리움이 통증처럼 밀려왔던 모양이다. 모두 4부로 이루어진 작품집에는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학교 생활, 자연과의 대화 등이 주를 이룬다.

"아슬아슬한 정대 끝/ 달을 듯 달을 듯.../ 하늘 끝 바라보는 누부의 마음은 벌써 그 옛날의 탈복함으로 달려가고// 아/ 허 끝에 녹아나.../ 진홍빛 홍시"

'홍시는 간짓대로 홍시를 따는 장면을 동생



과 누나의 대화 형식으로 담은 작품이다. 시골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추억을 환기한다. 이처럼 70여 편의 시들은 그리움이라는 정서에 수렴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는 "시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늘 품고 있었지만 쉽게 시는 찾아오지 않았다"며 "시 무지랭이에서 시인으로 이끌어준 고 문병란 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평론가인 노철 전남대교수는 "전남주의 시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친구의 얼굴을 떠오르게 한다. 멋을 부리는 차림새가 아니라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취해가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체취가 있다"고 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방치된 묘지 70%(추정)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